

# 지난해 광주 자살률 7% 감소...예방사업 성과

### 고위험군 선제적 발굴·유족 지원 등...10만명당 23.9명 전국 최하위권 광주형 24시간 자살위기 응급대응시스템 구축...전국 자치단체 벤치마킹

광주시의 자살예방사업이 자살률을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 광주형 24시간 자살위기 응급대응 시스템은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다.

20일 광주시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9년 광주시 자살률은 전년보다 7% 감소한 23.9명(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으로, 2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자살률이 꾸준히 하위권을 유지한 것은 2012년 국가정신보건사업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설치한 광주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광주시는 ▲자살예방 캠페인·홍보 등 범사회적 환경조성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자살예방 인력 양성 등 지역사회 역량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24시간 자살위기 응급대응체계 구축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펼쳐왔다. 자살시도 재발 방지를 위해 전남대학교 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중소병원과 연계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응급실에서 연계된 자살시도자에게 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고위험군의 사망과 재시도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자살 고위험군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데도 낙인과 편견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자살유족을 발굴해 통합 지원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남겨진 이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해소하고 연쇄적인 자살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살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실제 자살사망자의 45.8%는 가족 중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사망한 경험자다.

시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사업을 통해 자살 사건 직후 유족에게 초기상담부터 법률·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심리지원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 이후 유족 발굴 건수는 4.3배, 집중 관리를 위해 등록된 유족 건수는 3.6배 증가했으며, 발굴된 유족에서 자살 사망

로 이어지는 사고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타 자치단체의 롤모델이 된 '광주형 민관 협력 24시간 자살위기 응급대응체계'도 자살률 감소를 위한 핵심 시스템 중 하나다. 시는 24시간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하고, 경찰·소방과 현장 동반 출동, 야간 및 휴일 응급입원 가능한 SOS 핫라인 정신의료기관 지정·운영 등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상담 대응과 야간 출동을 위해 지난 7월 광주자살예방센터의 야간 전담인력을 6명에서 12명으로 확충하고 응급개입팀도 확대 운영 중이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체계적인 자살예방사업을 통해 자살률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글로벌모터스 본부장·경력직 12명 공채

전국 최초 지역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본부장, 경력직을 공개 채용한다.

20일 GGM에 따르면 이번 공개 채용에서는 생산, 생산품질, 경영지원 등 분야에서 본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대리급 9명 등 모두 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본부장급은 20년 이상, 과장급은 5년 이상, 대리급은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뇌신경과학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해 지원자의 역량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역량 검사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원서는 채용 전문 업체인 마이디스인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접수받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유촌동 새 청사 업무 개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5일 광주 서구 유촌동 새 청사에서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신청사는 2만3584㎡ 부지에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올해 10월 서구 화정동에서 새 청사로 이전했다. 신청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실험실과 연구실 등을 갖춘 감염병 연구동, 식품의약품연구동, 동물위생시험소로 구성됐다. 새 청사는 지열 시스템, 태양광 설비 시스템, LED 조명기구, 빗물 재활용 시스템 등을 설치해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으로 건립했다.

민원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를 설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주의보

### 광주소방본부 "화재·폭발 취약"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실제 지난 15일 북구 누문동에서 운행 중인 전동킥보드가 차량과 충돌해 킥보드 배터리 및 타이어 등이 소실됐는데, 주원인이 전동킥보드배터리 박스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에는 광산구 아파트에서 전동기기 충전 중 배터리 과충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 2명, 부상 4명의 인명피해와 3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3년간 광주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기에서 8건의 화재로 6명의 인명피해와 735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6건이 배터리 충전 중이었고, 나머지 2건은 물리적 충격에 의한 것이었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기의 배터리는 화재나 폭발에 취약해 화재시 급격한 연소확대로 이어진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복지실천사례 공모전 시상식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지난 15일 열린 코로나19 일상 광주복지실천사례 공모전 시상식에 참가한 수상 기관 관계자들과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시는 이날 시상상 5개 기관, 대표이사 5개 기관을 각각 시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역점

### 광주시 동절기 시민생활안정 대책 감염 예방·확산 차단 등 25개 과제

광주시는 20일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비롯한 저소득층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시민생활안정 및 시민불편 해소, 재난·재해 대비 안전관리 강화 등 4개 분야 25개 과제다.

시는 동절기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과 신속 대처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방역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는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와 독감 동시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호흡기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매뉴얼을 구축하고,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도 11개 기관까지 설치·운영하고, 지역 내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1차 의료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차상위계층 305세대, 사회복지시설 25곳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생계·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가정 등 2만4000여세대에

연탄, 등유,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방학동안 결식 우려 아동 1만4000여명에 대해서는 급식을 지원한다.

겨울철 동파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긴급대책반을 운영하고, 강설 시엔 31사단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제설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대설특보 시에는 적설취약구조물에 대해 3회 이상 일상점검을 추진한다.

이정식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방역 및 재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일곡청소년문화의집 내일 문 연다

### 6번째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창의작업실·밴드실 등 갖춰

광주시는 20일 "일곡청소년문화의집(별정 당근센터, '당'신의 '근'처 청소년문화의집)이 오는 22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 '일곡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활동 지원에 위해 국비 19억8000만원, 시비 10억7000만원 등 총 30억5000만원이 투입됐으며, 일곡동 932-1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02㎡ 규모로 건립됐다.

광주시는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해 지난 3년간 관내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해왔으며, 2019년 봉선청소년문화의집에 이어 6번째 시립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일곡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한다.

개관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하지 않으며, 21일부터 26일까지를 개관주간으로 지정해 방문자에게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1층에는 웹툰제작 등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의작업장과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가 있으며, 노래방, 미디어밴드실, 동아리방이 있다.

2층에는 청소년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댄스연습실과 다목적홀 등이 있다. 다목적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등 청소년이 좋아하는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하다. 일곡청소년문화의집은 화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청소년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